

‘손’ 쓸일 많아진 벤투호

손흥민 아시안컵 합류 ... 최근 2주간 4경기 부담 벤투 감독 “출전시기 충분한 대화 뒤 조율하겠다”



“손흥민이 합류하면 다른 팀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나선 벤투호가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의 가세로 결정력 부족의 아쉬움을 털고 ‘공격력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손흥민은 한국시간으로 14일 새벽 펼쳐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 뒤 곧바로 아시안컵이 펼쳐지는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손흥민은 UAE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다시 1시간여를 자동차로 이동해 벤투호가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르는 아부다비에서 태극전사들과 만나게 된다.

손흥민이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내 평가전 이후 3개월 만이다.

10월 A매치 이후 소속팀 경기에 집중한 손흥민은 무서운 결정력으로 토트넘의 상승세의 핵심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부터 13경기 가운데 12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서 9골 6도움을 뽑아내며 뜨거운 발끝을 자랑했다.

이 때문에 벤투호는 골감각에 물이 올라 있는 손흥민의 합류를 기대했다.

더군다나 벤투호는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두 경기 연속 1-0 승리에 아쉬움이 남는 터라 손흥민의 가세는 팀의 공격력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손흥민은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은 10월부터 소속팀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터라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에 9경기 출전에 이어 1월에도 2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손흥민을 맞이하는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도 손흥민의 출전 시기를 놓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출전 시기를 조율하겠다”라는 원칙을 내놨다.

의무팀이 손흥민의 몸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손흥민과 대화를 통해 오는 16일 예정된 중국과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 나설 수 있을지를 결정하겠다는 게 벤투 감독의 생각이다.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그동안 부주장인 김영권(광저우)이 차고 있던 주장 완장도 건네받는다.

태극전사들도 손흥민의 합류를 반겼다.

조별리그 두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골키퍼 김승규(빗셀 고베)는 “손흥민은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라며 “큰 대회에서는 좋은 선수를 보면 상대팀이 겁을 먹게 마련이다. 손흥민의 합류로 우리 팀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전에 경고누적으로 결정하는 이용(전북) 대신 오른쪽 풀백이 유력한 김문환(부산)도 “손흥민은 팀의 경기력은 물론 공격력에도 큰 역할을 하는 선수”라며 “주장으로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대표팀에 활력을 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걱정마! 내가 왔잖아” 토트넘의 손흥민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14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나상호, FC 도쿄 이적

“일본서 경험 쌓아 유럽 진출하고 싶어...광주 FC 의미 깊은 팀”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광주FC의 나상호가 일본 프로축구 J1리그(1부리그) FC 도쿄로 이적했다.

나상호는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 해외무대를 경험하고 싶었다”며 “시스템과 축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일본에서 경험을 쌓아 추후 유럽 진출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프로 데뷔 팀이었던 광주FC를 떠나게 된 나상호는 “광주는 학창시절과 프로 데뷔, 국가대표까지 좋은 기억을 함께한 팀이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며 “막상 떠나려니 마음이 무겁다”고 아쉬운 마음을 밝혔다.

2017년 프로에 데뷔한 나상호는 지난 시즌 31경기 출전해 16골 1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2 MVP

와 득점왕, 베스트일레븐을 모두 휩쓸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2019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표팀에도 승선한 그는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쳐 필리핀전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나상호는 “광주FC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유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광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차기 시즌 목표에 대해 나상호는 “광주에서처럼 개인상 수상과 팀인 FC도코의 우승에 기여하겠다”라며 “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 우승 비결은 강한 압박”

프로축구연맹 K리그 데이터 분석...1초당 전진속도 2.05m 1위

2018시즌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에서 우승한 전북 현대는 강한 압박-전진 플레이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발간한 2018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시즌 공격 연계 작업을 시작하는 지점이 평균 49.2m로 리그 1위를 기록했다.

연맹은 “전북은 강한 압박 플레이로 공을 뺏어 공격을 이어간 것”이라며 “전북은 이러한 적극성으로 경기당 평균 12.9회의 가로채기(전체 1위), 최소 유효슈팅 허용(152회)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 시즌 득실차 44를 기록했는데, 이는 36년 K리그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전북은 이밖에 1초당 전진속도 1위(2.05m)

를 기록하는 등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전개했다.

전북의 세부 기록은 외국 클럽들과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연맹은 “축구분석업체 옵타에 의뢰해 독일 분데스리가, 일본 J리그, 중국 슈퍼리그 소속 82개 팀과 전북의 기록을 비교했는데, 전북은 경기당 6.5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해 상위 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키패스 기록은 82개 팀 중 전체 1위였다.

2018 K리그 테크니컬 리포트는 이밖에 2018 시즌 K리그에서 나왔던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해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연맹이 2018시즌 K리그1과 K리그2 총 408경기의 데이터를 분석해 만들었다. /연합뉴스

‘메神’

메시, 라리가 400골 최초 달성

435경기 만에...감독 “우주서 온 듯”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이하 라리가)에서 통산 400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메시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우에서 열린 에이바르와의 2018-2019 라리가 홈 경기에서 후반 8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었다.

루이스 수아레스의 패스를 받아 수비수를 따돌린 후 원발로 골대 안에 밀어 넣었다. 메시의 이번 시즌 23호 골이자, 리그 17호 골이다.

2004년부터 라리가 무대를 밝은 메시가 리그 435경기 만에 넣은 통산 400번째 골이기도 하다. 라리가 400호 골 달성은 메시가 최초다.

메시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선수는 이전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로 모두 311골을 넣었다.

리그에서 메시는 데뷔 2006-2007시즌 이후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이다. 2011-2012시즌엔 리그에서만 50골을 넣기도 했다.

서른을 넘긴 후에도 여전히 기량을 과시하며 지난 시즌에도 34골을 터뜨렸다.

리그 경기 외에도 코파 델레이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뒀 모든 경기를 포함하면 총 658경기에서 575골을 넣었다.

에르네스토 발베르데 바르셀로나 감독은 메시를 가리켜 “괴물 같다. 다른 우주에서 온 듯하다”며 “엄청난 숫자다. 그렇지만 메시는 골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한다. 다른 선수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날 바르셀로나는 에이바르를 3-0으로 완파하고 승점 5점 차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기분 최고”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1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 노우에서 열린 에이바르와의 2018-2019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성훈, PGA 투어 소니오픈 공동 10위

임성재 공동 16위

강성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소니오픈에서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강성훈은 1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7천44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640만 달러)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4개를 적어냈다.

한꺼번에 6타를 줄인 강성훈은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로 경기를 마쳤다. 선두에 8타 뒤진 공동 10위로, 아직 PGA 투어 우승이 없는 강성훈의 이번 시즌 첫 톱 10 진입이다. /연합뉴스

이번 대회에서 강성훈은 1라운드 이븐파로 주춤했으나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플레이가 살아났다.

2라운드에서 3타,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6타를 더 줄였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선 두 번 만에 공을 그린 위에 올려놓은 후 기분 좋은 이글로 경기를 마쳤다.

이번 시즌 두 번째 톱 10을 노려왔던 임성재(21)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를 기록하며 2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2언더파 공동 16위다.

양용은(47)은 이날 4언더파를 치며 선전해 공동 3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연합뉴스